

‘Bitches Brew’를 통하여 본 마일즈 데이비스와 포스트모더니즘

김형천
여주대학 실용음악과
e-mail:hyung_chun@yahoo.com

Miles Davis and Post-Modernism Through ‘Bitches Brew’

Hyoeng Chun Kim
Yeju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재즈의 가장 중심적 인물인 마일즈 데이비스의 ‘Bitches Brew’는 일반적으로 70년대 이후 현대 음악의 뿌리로 언급된다. 즉, 락 음악과 재즈가 합쳐진 퓨전음악이 시작으로 보는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단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형성된 악기 편성과 연주 방식에 프리재즈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탄생한 것으로 본다. 수많은 예술적 표현 가운데 새로움에 대한 갈망과 형식에 대한 반감은 문학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적 작품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표현 방식에서의 주제의식이 마일즈 데이비스의 ‘Bitches Brew’의 그것과 상당히 흡사하다. 존 바스의 주제의식과 마일즈 데이비스의 기존의 양식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비교, 분석하여 재즈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유추하여 본다.

1. 서론

1.1 포스트모더니즘

모더니즘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를 중심으로 나타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운동으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 방식에 의한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기존 가치관과 문화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가지고온 1차 세계 대전의 영향 속에 과학과 합리주의적 가치관에 도전하며 기존 문학을 극복하고 쇄신하기 위한 운동이다. 앞서 언급한 이미지즘 표현방법도 이 모더니즘 시기에 포함된다. 모더니즘 문학표현 형식은 외적인 질서, 통일성보다 내면의 일치를 중시하므로 시간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플롯과 공간적 구성, 진지적 작가 시점을 벗어나 복합적 시점과 새로운 시간관, 그리고 내적독백 즉, 의식의 흐름기법이 사용된다.

이에 반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2차 대전 이후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자연의 파괴, 소비주의의 팽배, 과학 기술의 발달, 권위적 세계관에 대항하는 여권의 신장 등으로 형성된 20세기 중, 후반을 특징짓고 전통과 혁신을 통하여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지향하는 시대정신으

로 대두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원칙은 상대성, 다원성, 불확정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장르의 구분을 없애고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대중문화의 발달을 가지고 온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과 인습에 맞서 독자적으로 나가던 모더니즘 자체가 일종의 전통이 되어버린 현실을 비판하고 전통에 대한 비판력을 상실한 모더니즘을 반성, 극복하려는 비판적 반작용에 해당하는 의식의 단절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문학부터 모든 예술분야에 걸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운동으로서 재즈의 흐름에서 보면 프리재즈 방식과 상당히 흡사함을 알 수 있다.

1.2 Bitches Brew는 재즈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넘어가던 시기 마일즈 데이비스는 40년대 말 비밥재즈 시기에서 쿨 재즈로의 음악 방향의 선회, 50년대 말에 와서 다시 한번 모달재즈로의 진로수정 등 10년 단위로 진화하는 뛰어난 음악성을 보여준다. 이후 마일즈 데이비스는 6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전혀 다른 행보를 취하기 시

작한다. 자신의 음악에 전기악기 효과를 통한 확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세 대의 드럼, 두 대의 베이스, 퍼커션 등 파격적인 리듬색션을 동원하여 비트의 흥수를 느끼게 해주는 'Bitches Brew'는 사이키델릭락과 재즈의 즉흥연주, 현대적 음악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 앨범은 퓨전재즈 사상 가장 중요한 초기작품으로 평가되며,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퓨전, 크로스오버와 유럽의 실험적인 재즈 아티스트들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69년에 발매된 마일즈 데이비스의 걸작 'Bitches Brew'가 퓨전재즈의 시작이며 재즈락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Bitches Brew'라는 앨범을 확적인 리듬을 차용한 현대 펑크, 퓨전음악의 시작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 태동시기의 프리재즈 영향으로 탄생했다고 본다.

프리재즈가 중심이었던 60년대를 통하여 마일즈 데이비스 또한 존 콜트레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마음 한 자리에 프리재즈에 대한 동경과 프리재즈적 표현에 대한 갈망이 넘쳤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과거 프리재즈의 첫 개념을 선보인 오넷 콜맨의 등장과 존 콜트레인을 비롯한 몇몇 재즈 뮤지션들과 함께 큰 관심을 보인 사실로도 알 수 있다.

프리재즈에서 가장 큰 특징은 멜로디라고 불릴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시작과 끝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형식 또한 없다. 서로 특정 상황만 주어진 상태에서 상대 연주자들과의 교감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60년대를 주름잡았던 회대의 락 기타리스트 지미 헨드릭스의 연주도 그러하다. 우드스탁 페스티벌에서 보여준 그의 연주를 보면 마치 신 들린 듯 한 자기표현만이 존재한다. 리듬적인 요소만 다를 뿐 실상 연주방식 면에서 프리재즈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일즈 데이비스는 60년대의 음악변화를 몸소 겪으며 존 콜트레인의 음악과 지미 헨드릭스의 음악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오넷 콜맨의 자유로움을 자신의 방식으로 'Bitches Brew'로 나타내기에 이른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애매할 뿐 아니라 특정 반복도 의도한 바는 아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시작에 의한 연속적인 프리재즈식의 즉흥연주의 향연인 것이다. 악기의 사용과 리듬은 프리재즈의 그것과 차이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대적인 흐름에 순응한 것이고, 그 표현 방법 자체는 프리재즈의 연장으로 봐야하는 것이다. 'Bitches Brew'는 결국 마일즈 데이비스적 프리재즈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프리재즈적인 영향을 일렉트릭 사운드로 새롭게 해석하여 현대 음악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은 높이 평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60년대 후반 이전까지 존 콜트레인의 그늘 아래 돌파구를 찾지 못한 듯 보이는 점은 비판적인 요소로 작용된다.

2. 본론

2.1 마일즈 데이비스와 존 바스(John Barth)의 포스트모더니즘 주제 의식

마일즈 데이비스의 'Nefertiti'가 나오던 해인 1967년에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선언문적인 문학 비평문인 존 바스(John Barth)에 의하여 발표되는데 'The Literature of Exhaustion'(고갈의 문학)이 그것이다. 이후 이 비평문을 기점으로 70년대로 가면서 문학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된다. 이에 상응하여 재즈 흐름에서도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 시발점을 마일즈 데이비스의 'Bitches Brew'로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Bitches Brew'는 큰 틀에서 보면 프리재즈의 가장 큰 방식인 특정 멜로디가 없다. 리듬적인 부분은 다소 반복을 통하여 기억이 되지만 멜로디는 상당히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아무런 걸림돌 없이 표현의 자유 자체만을 추구한 것이다. 비밥시기를 비교하면 형식적으로 많이 자유로워진 모달재즈 시기에도 어느 정도의 구성, 형식은 존재해왔지만 'Bitches Brew'를 기점으로 형식은 의미가 없어진 듯하다. 형식보다 개인의 감정에 충실했던 모더니즘 문학이 활개 친 시기에도 형식의 완전한 소멸은 아니었으며, 그 형식에 있어 포스트모더니즘 작품들에 와서 황당할 만큼 자유로워진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50년대 말을 지나 6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모달재즈적인 표현방식은 결국 극단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시점을 재즈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규정하고, 1970년 'Bitches Brew'를 정점으로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음악을 알리게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점이란 'Bitches Brew' 이전에 초기적 시도들이 존재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40년대 이미 수많은 쿨 재즈적 노력들이 존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49년 'Birth of The Cool'을 기점으로 쿨 재즈의 시작을 알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모달재즈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넘어갈 시기의 표현양식을 '극단' 또는 '극한'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극한'은 존 바스(John Barth)의 비평문

'The Literature of Exhaustion'에서 'Ultimacy'로 표기된다. 존 바스는 이 비평문에서 극한은 기존 표현방식과 형식 자체를 어디까지 무너뜨리고 벗어나느냐에 대한 최대치 상태로 표현한다. 'The Literature of Exhaustion'이란 비평문의 제목만으로는 문학의 원천이 고갈되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문학에 대한 일종의 사망선고쯤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존 바스는 이 글에서 '고갈'(exhaustion)의 의미를 모종의 문학형식의 타진, 또는 어떤 가능성의 고갈로 못 박고 있다. 고갈된 모종의 문학형식이란 인과관계와 연대순의 사건 묘사 등 이미 낡아 버린 전통적인 장치들에 의존하면서 액션을 직접 모방하려고 시도하는 기존의 문학 작품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존 바스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에 이미 기존의 문학 형식이 20세기 후반의 극한에 달한 세상을 담아내기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던 것이다.

비평문에서 존 바스는 이러한 극한의 시대에 작가들이 대처할 수 있는 본보기로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를 든다. 사무엘 베케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혹은, 발단-전개-절정-하강-대단원의 기승전결이 아닌 원형 순환하는 구조로 끝이 없이 반복되는 구조를 쓴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고도를 기다리며'가 있는데 현대극의 흐름을 바꾸어 전통적인 사실주의에 반기를 든 세계대전 이후 부조리극의 고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베케트식의 침묵은 현재의 작가들이 처한 극단적 상황에 대한 극한적 대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예술가란 단지 모든 것의 끝을 증언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존 바스는 보르헤스를 본보기로 삼는다. 보르헤스는 20세기 초 프랑스 작가 삐에르 메나르(Pierre Menard)라는 허구의 작가를 설정하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중 일부를 한자 틀리지 않게 베껴 썼음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를 능가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되는 특이한 과정을 발표를 한다. 그 내용 중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메나르의 돈키호테를 비교한 일부 내용은 이렇다.

Pierre Menard, autor del Quijote - Jorge Luis Borges

...truth, whose mother is history, rival of time,

depository of deeds, witness of the past, exemplar and adviser to the present, the future's counselor.
-Miguel de Cervantes

17세기 천재 작가 세르반테스에 의해 창작된 역사를 단지 수사적으로 나열해 놓은 글...

...truth, whose mother is history, rival of time, depository of deeds, witness of the past, exemplar and adviser to the present, the future's counselor.
-Pierre Menard

역사! 진실의 어머니: 생각이란 놀라움이다. 윌리엄 제임스와 동시대인 메나르는 역사를 현실로의 요구가 아니라 근간으로 정의한다.

같은 글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늘어놓은 보르헤스의 이 작품에서 새로운 생각은 계속적인 새로운 창작에만 존재함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어떻게 보는 가에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르헤스가 오히려 극한적 상황을 역이용하여 독창적인 문학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똑같은 텍스트라도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쳐 집필된 것이라면 전혀 다르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의 언어적 구성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구체화, 활성화시키는 의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의미는 창작자가 아닌 독자 또는 청중의 머리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존 바스가 비평문에서 지적한 '고갈'이 곧 '문학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순수모더니즘 미학의 고갈'을 의미했음을 인지할 수 있다.

3. 결론

존 바스의 포스트모더니즘 견해를 비춰보면 마일즈 데이비스의 'Bitches Brew' 또한 같은 맥락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마일즈 데이비스는 초기 스윙시대부터 현대재즈를 아우르며 음악을 해왔었기에 기존의 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해 뿐 만 아니라 실상 그 변화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30년대 까지 스윙시대를 거쳐 40년대 비밥, 50년대 쿨 재즈와 하드 밥, 이후 50년대 말에 들어 모달재즈까지 오면서 마일즈의 진화는 계속 되었다. 모달재즈에 이르러 비로소 형식과 규칙을 벗어나 순수

자연과 같은 멜로디로의 집중이 이루어졌다. 결국 마일즈 데이비스는 오랜 기간 동안 재즈의 변화에 순응하고 반항하면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존 바스가 보르헤스의 예를 들어 말한 바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던 모달적 접근방식과 프리재즈적 요소를 재해석하여 59년 'Kind of Blue'라는 진정한 재즈 낭만주의에서 재즈의 모더니즘을 이루어낸 것이다. 형식의 틀을 깨려고 했던 모더니즘이 결국 모더니즘적 형식을 만들어 버린 결과와 같이 모달재즈 또한 모달재즈적 형식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문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재즈에서 또한 파격적인 자유로움의 상징이었던 프리재즈를 기반으로 결국 'Bitches Brew'를 통하여 포스트모더니즘화 된 것이다. 이후 60년대 전성기를 마친 프리재즈의 영향으로 꽃 피운 현대음악의 출발을 알리는 'Bitches Brew'는 단순히 재즈락이나 퓨전재즈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재즈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스윙시대 빅 밴드에서 캄보 밴드로의 축소가 비밥의 모태가 되는 쾌거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스윙시대의 대중음악이었던 재즈가 대중과의 거리감을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된 것처럼 'Bitches Brew'를 계기로 현대재즈로 발전하는 공적은 있지만, 그만큼 더 재즈를 난해한 음악으로 만들고 대중들과의 괴리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온 부분 또한 간과 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 [1] 유이 쇼이치, "A History of Jazz", 삼호출판사 1995
- [2] Jeremy Yudkin, "Miles Davis, Miles Smiles, and the Invention of Post Bop" 2007
- [3] 박희진, 김문수, "영국문학사 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사 2004
- [4] 이용학, 김문수, 이원주, "영미비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9. pp.173
- [5] Clavier, Berndt, John Barth And Postmodernism, Peter Lang Pub Inc, 2006
- [6] Fogel, Understanding John Barth, South Carolina, 1899